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BRIEF | 2016년 10월 19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국정감사 시리즈 ④>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자료제출 얼마나 달라졌나”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태로 지적되는 대부분의 사항은 국회의원들의 국감행태-몰아치기, 막말, 무리한 자료 요구, 무분별한 증인채택 등-다. 국회의원의 이러한 국감태도도 문제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국감 행태 또한 문제가 되어 왔다. 국감에 증인(기관증인 및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국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증인들의 행태도 국감 개선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표 1】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첫날 자료제출 요청 건

연번	위원회	일자	피감기관	현장에서 자료 제출 요청	자료 미제출 및 미비지적	계	비고
1	법제사법	10.10	감사원	3	2	5	
2	정무	10.04	한국산업은행 외	7	3	10	
3	기획재정	10.04	한국은행	2	0	2	
4	미래창조	10.06	방송통신위원회 외	8	0	8	
5	교육문화	09.27	문화체육관광부 외	11	6	17	*유은혜 의원 자료제출 목록 32건 미제출 지적 *과장, 주무관 등 현장 출석 요구
6	외교통일	09.26	외교부 외	6	2	8	*김동철 의원 자료제출 목록 중 42건 미제출 지적
7	국방	09.29	병무사업청 외	0	1	1	
8	안전행정	10.04	서울특별시	0	0	0	
9	농림축산	09.27	해양수산부	0	0	0	
10	산업통상	09.26	산업통상자원부	5	12	17	
11	보건복지	09.26	보건복지부	3	2	5	
12	환경노동	09.27	환경부	0	0	0	
13	국토교통	09.30	한국수자원공사 외	2	2	4	
계				47	30	77	

* 출처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국정감사가 열린 첫 영상회의록을 기준으로 함)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비협조적인 행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20대 국회에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영상회의록을 통해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각 상임위원회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체크해 본 결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약 77건이다. 이 중 47건은 자료를 제출을 현장에서 요구 당한 사례이며, 37건은 온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했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적된 사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 중 불출석한 경우에 증인을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의 안이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료제출 요구를 피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확보방안이 요구된다.